

Welfare and healthy places

: As an effort to rethink Korean welfare services

복지와 장소: 우리나라의 복지를 돌아보고자 하며

Seo, Hyun-Bo 서현보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는 복지라는 단어를 학회 이름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료시설에 더 많이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직 의료시설에 관해서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특히 급속히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올해의 화두로서 복지를 제시하여 본 학회지가 회원들이 논의하는 장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다. 의료와 복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 일상이 얼마나 유지되는가가 복지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개인이 만나게 되며 사실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의 관계재로서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공간이 복지센터, 요양원과 같이 시설이라는 측면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다. 의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설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환경에서도 전달된다는 점이 우리에게 새로운 점이라고 본다. 더 알아가야 하겠지만, 복지의 최근 연구 경향은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적 접근이라고도 불리며 낯선 공식 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미 알고 지내는 조금 더 젊은 이웃 노인이 고령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본인도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고령의 노인이 필요한 것을 챙겨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결국 복지의 질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자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전달하는가에 달려있는 관계재로서 평가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서비스 방식과 대상자의 자격요건까지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내려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내용은 시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복지의 미래를 생각하며 결국 관계재로서의 복지서비스와 한 개인이 만나는 것은 공간이며 앞으로의 복지를 담은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제시되고, 공원, 길, 도서관과 같은 지역사회의 공공공간을 활용하며 연계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포함되는 진취적인 내용들과 함께 시설뿐만 아니라 정책, 지역사회, 일상 등 다양한 주제의 경계를 넘어가며 복지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